이웃들에게,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친구이고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 준비가 갖는 의미

조성미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준비운영위원장

예산과 홍성은 참 아늑하고 순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있지만 서울에서 '장항선'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천안과 온양의 도심을 빠져나온 기차는 가쁜 숨을 고르기라도 하듯 속도를 늦추고 한적한 평야로 접어듭니다. 예당평야지요. 멀찍이 낮은 구릉들이 에둘러 감싸고 있는 들판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기차는 느릿느릿 달려갑니다. 합덕-예산-삽교-홍성에 이르는 아늑한 이 들녘은 언제보아도 평화롭습니다. 이 맘 때쯤이면 들녘은 온통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야트막한 산자락엔 빨갛게 감이 익어가는 수수한 농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요.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땅거미 지는 예당평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로소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안도감에 온몸이 나른하게 풀리곤 했습니다.

저는 홍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해바다 짠 바람이 사철 불어오는 산골마을에는 제가 중학생이 돼서야 하루 두 번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오지였지요. 지금은 마을 뒷산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옆 동네엔 농공단지가 들어서 작은 공장들도 생겼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동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년 내내 맑은 샘물이 펑펑 솟아나던 우물이 슬며시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배추쌈을 씻어 먹었습니다. 여름엔 차고 겨울엔 따뜻했던 그 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면 어머니를 따라서, 운동회를 잃어버리고 꾸중 들을 일이 걱정일 때도 저는 그 우물가를 서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 우물은 어머니와 같아서 저를 키운 8할은 그 웅숭깊은 우물이 아니었나 싶어 그립습니다.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유민의 땅으로 바다와 들이 모두 비옥하고 안온하기 그지없어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자했던 옛 선비들이 은둔하기 딱 좋던 변방이었지요. 한 번도 중심이었던 적이 없는 이 궁벽한 들녘에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것 자체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입니다. 대대로 이곳에서 농토를 갈아 먹고 살던 원주민들은 이 갑작스런 개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불안도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용봉산 아래 홍북 삽교 뜰은 비옥하여 농민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금싸라기 같은 농토였기 때문입니다. 쌀은 물론이고 딸기와 사과, 무, 배추, 버섯, 축산물까지 식량창고나 다름없던 생산의 땅에 아파트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밤에도 잠들지 않는 소비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저 시대의 변화이거니 수긍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의식 저 편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립니다.

다행인 것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서 환경과 생태를 우선적 가치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은 내포신도시에 난방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면서 당초 공표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발전소의 연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시공사의 주도 하에 슬그머니 바뀌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도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입니다. 환경파괴와 오염의 문제가 대도시,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농촌의 생산자들에게도 삶을 위협할 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다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여러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홍성환경운동연합 발기인대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5일 예산의 윤봉길기념관에서 1백 50여 명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의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모처럼 예산과 홍성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게 된 것입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아직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을 모으고, 충남도와 시공사에 발전소 건설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의사가 반영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과 친환경 자원순환의 원칙 등 처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쓰레기매립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자들에 의해 농촌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된 석면광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청양 강정리마을이 그렇고, 예산의 대술면 궐곡리마을 주민들이 3년 째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궐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 반대 현장〉

예산의 궐곡리는 논과 숲과 마을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입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사이좋게 지내던 궐곡리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사업자의 이간질로 민심까지 갈라지는 등 평화롭던 마을이 유례없는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야산에 조성하려고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3만여 평 부지에 매립용량이 132만㎥에 달하고, 지하를 깊이 파고 에어돔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합니다. 예산군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사업자에게 '사업계획부적합' 통보를 내렸는데 사업자가 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궐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탄원서를 내고, 현장답사와 궐곡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갖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삽교 상하리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예산 고덕 녹수화학 공장 환경오염 문제, 예산 광시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황새 서식지 교란 문제 등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정식 창립 전인데도 여기저기에서 긴급한 SOS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우리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로 놀랍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경관련 현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힘에 맞설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그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전부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운동연합 활동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의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어렵게 싸우고 계시는 강정리의 어르신들과 송전탑에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든 후 금강의 녹조현상과 죽어가는 물고기들, 날마다 자동차에 치여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길짐승들, 서식지를 빼앗기고 떠나가는 황새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이름과 얼굴은 모르고 살아왔지만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예산홍성의 환경지기들은 보이지는 않게 서로의 존재를 떠받치며 기대어 살아온 한 식구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깨달음은 왠지 모르게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발기인선언문에서 '작은 도토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거대한 떡갈나무의 혁명을 이루어 내듯이, 예산 홍성의 작은 도토리들이 모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땅을 지켜 내고 물을 지켜 내고, 하늘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작은 사람들이고자 합니다. 밀양과 강정리와 궐곡리의 어르신들이거나, 수만년 이어져온 물길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는 강물과, 도로건설로 쫓겨나는 작은 생물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이들의 벗이자 바로 그 작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모이고, 함께 밥을 나눌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는 것 뿐 이지만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이 땅의 농민들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들여다보고 그리하여 그들이 끝끝내 하늘이 되고 땅이 되었'듯이(김준태의 시 〈농민〉의 일부) 우리도 그렇게 땅이 되고, 물이 되고, 하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연대의 힘입니다. 함께 하면 아름답고,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준)은 2015년 초 창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